

데스크립

선박 수리산업과 해경 서부정비창 연계 효과

우성진

사회부장



부가 산업인 엔진 수리 분야에선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남의 선박 수리산업과 고속엔진 수리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해당 기업들의 환경은 매우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신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더불어 저탄소 및 친환경 산업 환경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 선박들은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환경 고효율 연료 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 역시 지역에 마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중소형 선박의 엔진 일부를 개조해 친환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의 일부를 개조함으로써 친환경성을 획득할 수 있고,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더불어 중소형 선박용 기자재 및 선박 용품 기술 개발 및 스마트 물류 기반 구축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관련 산업 특성상 선박 수리 때 각종 기자재와 선박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중소형 선박용 기자재 기업과 선박용품 생산·유통시설 집적화 및 미래 선박수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산업 집중지원 센터 설치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크게 네 가지 분야는 오는 2025년 완공될 해경 서부정비창과 연계하면 서남권역은 선박 수리산업의 중심지로서 완벽한 기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축을 이룬다.

부산에 있는 현 해경 정비장은 수리 수용 한

계를 넘어선지 오래고 대형 합정 상가(도크) 수리시설도 없다. 새로운 정비창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이면 첫 삽을 뜬다.

서부정비창은 해경이 운영하는 모든 경비합정을 상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총사업비는 2,370억원 규모다. 주요 시설은 대형 합정 두 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이 180m에 이르는 잔교식 안벽을 포함해 길이 190m, 폭 40m 크기의 1만급 플로팅도크, 여기에 500t급 정비 가능한 6선석이 마련된다.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수적 주력인 500t급 이상 태극급 중형 합정, 1,000t급 이상 한강, 제민, 태평양급 대형 합정 수십척, 해경 최대 규모 5,000t급 합정도 거리낌 없이 정비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만 3,000억원대

해경은 늦어도 오는 7월 매립·절토 등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부지 조성, 상가 제작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사업 시행 허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4년 건축, 설비 설치·준공 준비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준공·개장이 목표다.

서부정비창이 문을 열면 3,01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7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공사 기간에도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2,1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선박 수리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해경 서부정비창의 연계 프로젝트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략지정학자인 앨프리드 머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란 저술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바다, 해양을 아우르는 것은 곧 세계를 품는 것이다. 그 기반이 지금 전남 서남권에서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

남구민 민원처리를 위한 읍부즈만

기고

배상현

광주시 남구 읍부즈만 대표



광주시 남구는 2022년 1월부터 주민들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중립적으로 조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읍부즈만 제도' 운영을 본격 시작하였다.

필자는 대표 읍부즈만으로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충민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또 읍부즈만에 의한 권고 사항은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신청인의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을 비롯해 주민들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및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권고권 등을 통해 사실상 집행력을 최대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기울여 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 남구 읍부즈만은 현직 변호사를 비롯해 대학 교수, 건축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구성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민원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읍부즈만은 광주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읍부즈만을 통해 접수할 수 있는 고충민원은 광주시 남구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만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해당한다.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읍부즈만 회의를 통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실시가 결정된 민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민원사항을 검토, 의견 청취해 읍부즈만 전원회의체 심의·의결을 통해 조사결과가 확정·통보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남구 읍부즈만 제도는 다음을 준수한다.

첫째, 읍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겠다. (합의 권고를 비롯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 등에 따라 6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이뤄질 수도 있다).

둘째, 구청과 관계인들과 중간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주민들의 권의 보호를 위해 읍부즈만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읍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의 홍보와 구민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시설

지역 고용회복 '디커플링' 대책 마련을

광주지역 고용 회복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광주의 고용 회복 양상이 전국 및 광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용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선됐으나 광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광주보다 상황이 좋은 전남의 경우 전국 평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개선세가 특정 부문에 집중돼 문제다.

2020년 2월~2022년 4월 광주 월평균 취업자 수는 74만6,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2018년 1월~2020년 1월, 75만 명)의 99.4% 수준에 그쳤고, 전남은 코로나 이전 96만8,000명에서 98만3,000명으로 101.5%를 기록했다. 전남의 호전은 숙박·음식, 농림어업 부문, 노인 일자리사업 등으로 편중돼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00.8%, 특·광역시와 도 단위 평균은 각각 101.7%, 99.6%였다.

광주 등이 저조한 이유는 청년층과 중장

년층의 고용 복원이 지연되고 코로나 타격이 큰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 상황은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는데 이는 일자리 부족과 혼인 및 육아로 인한 여성 재취업 실패, 청년인구 순유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환은 이번 경제지표에 대해 제조업 복구와 함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꾸준히 육성을 주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지자체와 업계의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광범위하게는 지역 정치권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없�서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광주와 전남은 정치적으로 매우 침울한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제지표 악화로 더욱 심란하다. 지자체와 각 경제주체,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과 부양책이 절박하다.

가뭄 피해 생활물가 악영향 우려된다

광주·전남 전 지역이 주의 단계의 가뭄 상태에 진입했다. 지난 1~5월 누적강수량은 193mm로 평년 대비 54% 수준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겨울가뭄을 겪었고 이후 강수량도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 기준 광주 10.3mm, 전남 2.6~46mm의 비가 내렸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에도 불구하고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은 경계 단계의 가뭄 상태이며, 관심 단계의 약한 가뭄을 보이는 여수시와 장흥군을 제외한 광주·전남 전지역이 주의 단계의 가뭄 상태다. 또한 현재 광주지역 저수율은 평년대비 80.4% 수준인 48.2%, 전남지역은 평년대비 88.7% 수준인 51.1%다. 특히 평년 저수율 대비 현재 저수율이 50% 미만인 경계·심각단계 상태의 저수지가 광주는 52곳 중 6곳, 전남은 1,003곳 중 70곳으로 나타났다.

영농급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저수량이 평년 저수율의 절반도 안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모내기 시기를 맞은 농민들은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으나 울

해 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지마저 메말랐다. 일부 농민은 지하수를 끌어올린 관정으로 가까스로 버티는 상황이다. 비를 기다리다 못해 모내기를 한 농민들도 속이 타들어간다. 일단 모를 심었지만 벼 뿌리가 땅속으로 잘 내리지 못하고 따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벼가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수확량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소방센터에 비상 급수까지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농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죽은 모종을 새 모종으로 바꾸는 작업은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된다. 이대로라면 수확량이 줄어들어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를 신속 지원키로 했다. 전국에 나타난 기상 가뭄은 올 하반기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뭄을 이기는 단기 대책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광주·전남 교육 변화·혁신 기대

기지사첩

이나라

사회부 차장대우



교육의 대변화의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교육단체와 노조는 이들의 당선을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우려가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 측은 선거과정의 도움이 인사에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직원간의 소통을 당부했다. 과거 되풀이 됐던 전교조 출신의 코드식 인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교사노조도 교구 납품 관련, 시설 공사 관련 청렴도 하락 등을 우려했다. 특히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도 전교조 출신인 장학관·광주교육감 이후 근절된 촌지 문화가 다시 활개를 칠지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4년간의 광주·전남 교육운영 방향의 큰 틀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해안이 모아져야 4년 교육방향과 기초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형식적이고 절차상 필요한 기구로 그쳐선 안된다.

두 당선인 모두 기존 교육에서 좋은 정책은 받아들이고 개선사항은 바로 잡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교육대전환 시기 미래교육 대응과 실력향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감도 크다.

총총하고 면밀한 대비를 통해 광주·전남 교육에 변화와 혁신을 불어온 교육감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광주·전남 교육감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AI 등 미래 교육·고교학점제 도입과 자사고 부활 등 윤 대통령 교육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높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인선을 발표하고 인수위원회를 가동했다. 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현재 교육 전문가 등의 인선을 구상 중으로 늦어도 다음주 초 인선을 발표하고 전남교육청 인수위원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전남교육은 학생 학력저하와 직원간의 갈등,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 소멸 위기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지역민들은 이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건두 당선인을 선택했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Advertisement for Jeonnam Daily featuring a QR code and subscription information.